

## “이젠 도시학교 부럽지 않아요”

통합된 새 학교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해남우수영초등학교



조승원  
우수영초등학교 교장



학교전경 및 2014학년도 입학식과 돌봄교실에서 신나는 아이들

4년간의 지루한 통합을 추진해오던 문내면 4개교 통합 우수영초등학교 교장 조승원이 1년간의 공사 끝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3월 3일 드디어 첫 번째 입학식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의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군 문내면내 4개교(우수영초등학교, 문내 초등학교, 문내동초등학교, 우수영초등학교)와 분교를 통합하고, 새 교사를 지어 이전한 우수영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통합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지역민 간의 이해와 갈등, 토지보상의 제 문제에 부딪쳐 공사를 미루어 오다 2012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1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2014년 2월 27일에 준공 검사를 마치고 지루한 통합 및 이설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117번지에 위용을 드러낸 우수영초등학교는 교육동과 행정동, 역사관, 연립사택 등 4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교실 11실, 체육관, 시청각실, 과학실, 음악실, 도서실, 돌봄교실, 컴퓨터실, 어학실, 방송실, 급식생활실, 자료실, 학생회의실, 상담실, 보건실, 교사연수실(3실) 등 18개의 특별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3개의 관리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설유치원은 2개 교실과 교사실, 유희실, 아와 유아놀이장이 갖춰져 있고 5,000여m<sup>2</sup>에 이르는 정규 축구장 규모를 넘

어서는 천연잔디구장과 생태학습공원, 아와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야외학습장 등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교실과 일부 특별실에는 장차 완성될 모습인 스마트 스쿨과 스마트 교육에 대비하여 최고 성능의 전자칠판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전자음성 안내판, 엘리베이터, 2개의 특수학급 교실을 구축하여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을 배려한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4개교 통합으로 전년도 13명에 불과 하던 유치원 원아는 13명에서 33명으로 늘어 2개학급을 편성·운영하게 되었으며, 학생수는 91명에서 125명으로, 금년도 신입생만 22명으로 개학과 동시에 타지역 학교에서 8명의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수영초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4개교 및 3개 유치원의 통합과 동시에 새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한 우수영초등학교에서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바탕위에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역량을 가꾸어가는 우수영 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용하여 실력을 학생을 기르고자 교육과정·정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성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를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적극 추진하는 특색교육을 실천하여 우수영 교육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2014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 월간의 협의의 끝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고 그 실천을 위해 첫 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학교폭력과 윙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4대 사회악으로 칙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기에 통합과 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감지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교과교육과정, 앙생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교육과정 성과 발표회, 학생뮤지컬 등을 지난 2013학년도 1년간 통합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역민간의 화합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통합과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학교장협의회, 행정실장 협의회 등을 1년간 운영하여 왔다. 추후에도 지역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문화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4학년도를 새 교사에서 출발하는 우수영초등학교에서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도교육청의 인성요소를 집중 조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인물 및 역사의식 탐구를 통한 바른 인성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교과와 창의적체험 활동, 방과후학교 등에서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행복한 삶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길리아할 10대 역량을 선정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플랜을 운영하며, 독서·토론을 통한 접자는 능력 채우기와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의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감성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1인 1평생 악기제와 6남매 작은 오케스트리를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교육을 국제 에티켓과 더불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제언

#### 교장 선생님의 첫 번째 교육과제



양순권  
본지 발행인

새 봄의 시작과 함께 새 학년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설렌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과서,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 새로운 학교까지 온통 새로운 만남 속에서 희망을 맴ಡ고자 한다.

어떻든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지식 교육이 약화된 학교에서 어떠한 인성교육이나 진로 프로그램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공부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직업은 공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이 직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듯이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한다. 하루의 일과가 공부이며 공부하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부에 지겨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짚하고 싶은 생각에 비해 실제로 공부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어려워하고 또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기에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는 그들에게 어떤 오락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학교장이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며, 학생 개인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일일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일이다. 학교장 본연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비와 같이 행정이나 관리에 앞서 학교장은 학생교육, 특히 지식교育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 중심**  
비바람 속에서는 ‘너와 나’ 따로 없이 하나되어 이겨내고  
하늘 맑은 날에는 ‘너와 나’ 각자의 빛깔로 빛을 내는  
모두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미래의 인재!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 광주·전남 3월 1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인사말

# “교육 발전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 “전남 제일의 교육환경 구현”



“우리 여수교육지원청은 언제나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지원, 교직원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행정 지원,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만들고자 하는 기초기본학력이 탄탄한 교육과 고교 교육력 제고의 실현은 바로 우리 여수교육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지난 1979년을 시작으로 학교장과 교육장의 기간을 제외하면 온전하게 여수에서만 교사생활을 해 온 신경수 신임 여수교육장은 “교육도시로써의 여수가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교육장이라는 소임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신교육장은 그러나 “막상이 자리에 오고 보니 교육도시 여수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혁신하고 계시는 많은 교육가족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들을 대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며 “누군가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일의 맨 앞자리를 감당해야 할 것이고, 저에게 그 역할이 부여된 것이기에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신교육은 “항상 열린 교육장으로 교육가족 여러분과 지역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겠다”며 “그리하여 우리 여수교육이 전남 제일의 교육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가 행복한 영암교육 구현”



신임 나대수(羅大洙) 교육장은 “우리가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학생들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학교 모델창출의 경험을 살려 학생·학부모·지역사회·지자체 모두가 행복한 영암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신임 나대수(羅大洙) 교육장은 전남 나주에서 출생하여 조선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교육학 석사)하고 광양백운고교, 한울고교장을 재직하며 재직 중인 학교를 지역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2012년에는 초대 한울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여 전남 최초로 공립대안교육의 기반을 다졌고, 2013년에는 장흥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도교육청의 역점과제인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왔다.

## “엑스트라 없는 행복교육 실현”



복민관의 자세에 대해 고민했던 디산의 정신과 영광의 문화적 감성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신비의 고장 청자골 강진에서 여러분과 강진교육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교육적 소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엑스트라가 없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로 모든 열정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미약한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위대한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청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큰 희망의 미래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초·기본학력·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기소불용 불시이어인이라’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비를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직장 내에서 인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엑스트라 없는 행복교육 실현”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살아숨 쉬는 곳,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함평에서 균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너른들관으로 인해 함평천지라고 불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알려진 나비축제와 국립대전, 맛 좋은 함평한우 등 풍부한 음식문화는 친환경 녹색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함평 교육천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꿈은 인간을 시들지 않게 하는 생명수와 같고, 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함평 교육천지’를 위해 10대 주요 교육활동을 충실히 전개하고자 한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된 노형석 교육장은 목포교대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금천남초 교감, 영광초 및 장성중앙초 교장을 지냈다.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남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획력과 행정력, 교육의 열정과 전문성, 친화력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형석 교육장은 “이제 함평천지는 ‘호남가’에서 희자되는 너른 들판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너른 지평을 여는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 함평교육이 전남교육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배움공동체 행복한 장흥교육”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추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온다 해도 학부모와 지역민이 소통하고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한다면 우리의 소망인 ‘소통과 협력의 배움 공동체 행복한 장흥교육’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임 박봉수 장흥교育장은 “교육의 진정한 변화는 교육 활동의 꾸준한 전개와 변화를 기다려주는 교육가족의 끈기에서 출발한다” 존재하고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꾸준함과 조금 늦더라도 만리를 함께 가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학생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이 주인공인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며, 밝은 장흥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학생이 주인공인 학교, 미래역량을 키우는 배움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은 무엇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교육장은 “아프리카의 속담에 어린이 한 사람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배움공동체 행복한 장흥 교육’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 “학생과 현장 중시하는 학생교육원 운영”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은 제11대 원장으로 부임한 임태준 원장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배려의 태도를 강조하며 즐겁고 오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업무에 있어서는 개선과 변화로 전남의 미래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학생교육원을 만들어 학생과 현장을 중시하는 학생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출신인 임태준 원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전라남도학생문화회관 관장으로 부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의체험 캠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수준높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교육문화회관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 받았다. 이번에 전라남도학생교육원에 부임하면서 학생 교육원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원장은 광주교대(10회)와 조선대 법정대, 국민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딥양고교장, 전남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전남학생 교육원장,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장관재 교육감의 첫번째 교육국장을 맡아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무지개학교와 독서·토론수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 “친절하고 따뜻하게 교육문화서비스 최선”



3월 1일자로 전라남도학생문화회관 제4대 관장으로 부임한 최복용 관장은 부임사를 통해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여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교육가족을 맞이하고 교육문화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며 “다른 기관과 차별화·특성화 전략을 통해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만족도를 넘어 감동을 드리는 학생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진흥과 생활지도 담당장학관과 학생생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 부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관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순천고교교장, 옥곡중학교 교장, 학생생활지원과장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행정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 “시대변화에 맞는 전남형 정책 개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중심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변화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전남형’ 정책을 개발하여 전남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임 곽종월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조고, 해남고, 전남체육고교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행정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고와 조선대, 목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2년 임기의 해남교육장으로 지낸 바였다.

특히 해남교육장을 지내면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 모델을 창출했다. 도조고 교장 재직 시 신안군과 함께 ‘전국 최초 도서기숙형고교’를 유치해 교육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해남교육장 재직 시에는 해남군과 함께 ‘개나다 협동 교사 조성 영어캠프’를 실시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곽종월 정책기획관은 전남교육의 핵심이 농어촌 교육활성화에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전남의 농어촌 교육이 대한민국의 농어촌 교육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전남교육의 정책방향과 시책들이 학생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 “교육적 가치 있는 교육과정 지원행정”



전남교육의 비전인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막중하다. 교육과정과에서는 전남교육의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민영방 신임 교육과정과장은 “교육과정 행정의 우선과제는 교육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진단하고 “진실된 교육현장 모니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을 장려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교육에 의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현장의 눈으로 보고, 분석·종합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민영방 과장은 “어제 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내일이 더 보람되고 알찬, 교육적으로 가치로운 교육과정 지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전남의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며, 신바람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알찬 실력을 길러 행복한 미래를 일구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 “미래지향적 창조적융합인재 육성”



김용배 신임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학교중심의 행정을 펼쳐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융합인재를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진로·진학지도, 과학·영재교육, 국제 교육, 스마트교육, 특성화하고 직업교육 정책 등 현장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시행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하고 학교와 교육 청간의 가교 역할에 전력을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조곰이라도 해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과장은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졸업했다.

## “교육적 가치 실현에 최선”



이번 3월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으로 부임한 문종민입니다.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 위로가 되는 교장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만족스런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로 교육청의 중책을 맡게 돼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이제 저는 전문직으로서 광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을 이해하고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히 않겠습니다.

많은 지도 및 편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을 하늘로!



임면초등학교(교장 권영길)에서는 2014년 3월 3일 월요일 학교 운동장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꿈과 소망을 풍선에 담아 하늘 높이 띠워 보냈다.

| 지역교육지원청을 찾아서 – 구례교육지원청

# 지원청 평가 우수·Wee센터 개소 등 성과 톡톡



정봉호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 동해마을을 지나 우리 지역 조상들의 호국의 영이 깃들어 있는 칠의사, 금환락지로 이를 높은 운조루와 곡전제, 우리나라의 자연을 복원하고 있는 반달기념공원화학습장, 천년고찰 화엄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협동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견학으로 구성됐다.

이제 막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나리 중동초 교사는 “맑은 삼진강을 따라 펼쳐진 벚꽃이 가을을 벗자오르게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 우리 아이들의 꿈동산 구례에 대해 무척 궁금해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고장의 이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꾸려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고 밝혔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 ‘배움공동체 수업혁신’ 교실수업개선 발표회

지난해 11월 27일(수) 구례 섬진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9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배움의 공동체 수업혁신’과 ‘우수 교실수업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특강 강사로 나선 황금주(배움 공동체 연구회 사무국장) 강사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혁신’이라는 주제로 ‘학교의 개혁은 수업의 개혁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활동, 협동, 표현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신장시켜주는 열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실수업개선 우수 사례발표 강사 류왕선(구례동중 교육인)은 스웨덴과 핀란드 교육의 교실수업·동료성, 핀란드 교육의 개방적 교육제도, 학부모 공동체 형성, 유능한 교사 관리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강의식 수업위주의 획일화된 모형을 탈피하여 학생의 능력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접근의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과제 해결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자녀의 진로! 부모의 마음에 달렸다.

##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연수 실시



지난해 9월 28일(토), 10월 5일(토) 2일간 주말을 이용하여 구례 중앙초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자녀의 진로 탐색·진로설정, 천연비누만들기, 암화 제작 진로체험 등을 주제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9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진로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하였다.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안해 볼 때 학교현장에서 초·중·고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각종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캠프, 학부모 진로교육 등이 내실화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첫날 1회차 강사로 나선 김용현(구례고 진로담당)교사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중·고에서 진로·진학 분야에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중·고에서 진로진학으로 대학진학 및 졸업 후 올바른 직장선택까지 비롯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이승록 강사(구례문화재 연구회)의 암화 제작과 이은영(구례 솜씨광장) 오감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등이 실시되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10월 5일(토) 실시되는 2회차 진로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진로탐색, 진로설정, 입학사정 관계 등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진로교육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긍정적 자아관과 인생관을 형성시키며, 꿈이 이루어진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한 비전과 뚜렷한 성취의식을 심어주어야한다고 밝혔다.

## 구례교육지원청 22개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교육지원청 선정 영예



지난해 12월 30일, 전남도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전남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 결과 ‘우수교육지원청’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교육지원청은 도내 22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와 우수사례의 발굴 및 일반회를 통한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3 지역교육지원청 평가는 연초에 배포된 평가지표를 근거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했으며, 교육정보 공시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평가체제를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도의 비중이 크게 제고되는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 중 ‘기초학력향상 평가’, ‘체력평가 및 스포츠클럽 운영’, ‘컨설팅 장학운영, 독서토론’ 등 각 영역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등 두드러진 활약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 상반기 신규전입교직원 40명 대상

### 구례전입 교직원 섬진강 벚꽃길 따라 구례 탐방



지난해 4월 4일(목) ‘상반기 신규전입교직원 구례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로 전입한 교직원들과 신규발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관내 11개의 초·중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교직원 40명이 참여했다.

구례교육지원청 구례탐방은 신규전입교직원 구례탐방’은 섬진강 강변을 따라 벚꽃이 절정에 달

## 청소년들의 희망나침반

### 구례교육지원청 Wee센터 개소

지난해 11월 28일(목)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에게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례Wee센터 개소식이 김채홍 구례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장, 학교장, 상담교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에서 개최되었다.

구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사회 지원망과 연계해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Wee센터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따 만든 브랜드로 학교,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이 연계한 다중 안전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잠재력을 찾아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구례Wee센터는 지역사회 여러 전문기관들과 함께 위기 청소년 선도 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3. ‘구례교육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

## 사제간의 따뜻한 마음나눔

### 2013 희망교육멘토링 성과발표회

교育격차 해소를 위한 ‘2013. 희망교육멘토링’ 성과발표회가 2013년 12월 20일(금) 멘토링 업무당당교사 및 우수멘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원청 과학실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희망교육멘토링 성과 발표회에서는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멘토 2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우수사례 보고 발표회를 통해 멘토링 우수 활동을 널리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멘토링 성과발표회는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멘토링활동을 통해 구례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소외계층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자리였다.

## 구례사랑 쑥쑥! 문화·역사·생태탐구 체험활동



지난해 10월 14일(월)에 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인 ‘구례사랑 문화·역사·생태탐구 체험활동’을 관내 초·중학교 15개교 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구례군 주최로 10월 12일(토)부터 10월 14일(월)까지 3일동안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던 <2013. 구례동편제소리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산의 소리 江의 소리』주제로 열렸던 <2013. 구례동편제소리축제> 중 <동편제 짚은 소리>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예술과 무형문화유산인 동편제 판소리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어울림의 장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구례 출신의 명창 등 전국 최고의 명창과 명인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융호정, 석주관찰의사 등의 문화 유적을 탐방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민족정신을 되새기고, 수달생태관 체험을 통해서는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2013. 구례동편제 소리축제>와 연계한 ‘구례사랑 문화·역사·생태탐구 체험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살아 숨 쉬는 구례의 열과 애정심을 키우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꿈과 끼를 키워가는 청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지만 강한 구례!

### 2013 전국소년체전 금은, 동메달 획득



제42회 전국소년체전 5월 25일~5월 28일에 불광, 양궁, 씨름, 태권도, 육상, 수영 등 6개 종목에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2012. 전국소년체전 노메달의 한을 벗고, 작년에는 태권도 헤비급 구례북초 박기현군이 금보다 값진 은메달, 불광 개인전에서 구례중조

천영 학생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 획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것은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난 형제들의 반란이었다. 남중부 불광 총독 개인전, 2인조, 4인조에 구례중 조천영, 조천호 형제가 나란히 출전하여 형제간의 피보다 진한 우애로 선전하여 조천영 군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들 형제가 동시에 출전한 불광 4인조에서는 어렵게도 메달획득에 실패하여 4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자아냈다.

아울러 태권도 경기에서도 구례북초 박기현, 구례북초 출신 박근동(광양 중동중) 형제가 나란히 출전하여 금보다 귀한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피보다 진한 든든한 형제간의 우애로 금보다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훈훈한 미담을 전하고 있다.

## 사랑의 되지저금통으로

###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 실시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봉호)은 12월 19일(목) 2013년 한 해 동안 전 직원들이 나눔과 배려, 사랑의 실천으로 조금씩 모아온 사랑의 되지저금통 모금액을 관내 독거노인 및 지역이동센터 학생들에게 전기압력밥솥과 학습지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독기의 수혜자 김모씨는 “가족한명 없이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본인에게 이렇게 감사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혀 주변 사람들을 가슴찡하게 만들었다. 정봉호 교육장은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도 이웃을 위한 우리지원청의 배려이다. 서비스라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번 사랑의 되지저금통 캠페인 덕에 구례교육지원청사가 훈훈한 운기로 가득해졌다.”며, “전 직원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의 운기를 나눈 이번 불우이웃돕기는 각급 학교에도 전파되어 실천중이며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구례교육지원청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초·중·고등학교 교감과 교무행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무행정사 마인드제고 및 역량 강화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의 역할과 자세, 교무학사, 액셀, 포토샵 등 3 일간 총 21시간으로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현장에 근무하면서 교무행정사로서의 애로사항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회도 갖으며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석한 한 교무행정사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교실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정봉호 교육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무행정사의 교원행정업무경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2013 구례교육상 시상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봉호)은 31일 회의실에서 관내 교직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3. ‘구례교육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구례교육대상은 구례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타인의 극감이 되는 교직원 및 지역인사를 선발해 충다면 교직자상 정립과 구례교육홍보 등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례교육대상에는 구례동중학교 교무부장으로 무지개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으로 교실수업개선에 기여한 구례동중학교 류왕선 선생님과 지원중심교육행정 실현과 학교공문감총 및 교원업무경감으로 공교우 내실화에 기여한 구례교육지원청 김경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이날 시상식에서는 교육부장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교육감표창 및 친절직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광주희망교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다

교육적 위기 학생 지원 …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희국)은 어려운 교육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 광주희망교실 시즌2' 사업을 확대·추진 한다.

광주희망교실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소외 학생, 부적응 학생,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인생 멘토로 나서서 자존감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제동행 희망 기부 프로젝트이다.

특히, 부모의 기반이 대물림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기준의 교육복지학교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일반학교의 어려운 학생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주요 활동은 교사가 아이들의 멘토로서 엄마·아빠가 되어 학습멘토, 상담진료멘토, 문화멘토, 스포츠멘토, 체험멘토, 생활지원멘토 등 통합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과외교사가 되어 교과 학습을 지도하고, 야구 관람·영화 감상·등산·야영 등 다양한 체험 활

동을 실시하며, 성적·이성관계·진로 등에 대한 상담 활동, 생계 지원 활동 등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적응력을 높여준다.

이 사업은 작년 한해 1,142개 교실에서 1,500여 명의 교사와 13,0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한국교원대에서 발표한 '광주희망교실 성과분석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광주희망교실 사업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폭력을 포함한 부적응 행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 향상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키워주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 문항에 대해 교사 500명 기준으로 4.45점(5점 만점)을 나타냈다.

부적응 행동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지각, 결석, 규칙위반, 학교폭력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문 문항에 대해 교사 500명 기준으로 4.47점(5점 만점)을 나타냈다.

올해 광주희망교실은 3,000여개 교실을 공모한

다. 학급 활동, 학년 활동, 동아리 활동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며, 아이들의 멘토로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보고 싶은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 예산은 학급활동 100만원, 학년 활동 50만원, 동아리 활동 100만원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멘토 활동에 필요로 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형 지원은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가능하며, 이외 프로그램은 또래 친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학생 이외의 일반학생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다.

한편, 광주희망교실 사업은 교사에게 금지와 보답을, 학생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교육복지 사업 우수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광주시교육청 전국 최초 '무기계약직 장애인 채용', '행복교육 실천' 화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희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을 공개 채용하여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였다.

이번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 공개 채용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행복 일자리 창출 3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2014년도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 공개 채용 시험을 추진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적응훈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중증장애인 공개 채용 시험은 지난 1월에 1차 면접 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118명이 지원하여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 직종은 교육부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제시한 행정보조원, 도서관(실)보조원, 금식보조원, 청소보조원, 접객교정 등 5개 직종이다.

사전 적응훈련 연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와 연계하여 지난 2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중증장애인이 배치되는 기관과 학교에서 직무교육, 현장적응훈련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최종 합격자는 사전 적응훈련 연수를 거쳐 배치 예정인 부서장 또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였다.

행정보조원에 합격한 양소연(34세)씨는 "그동안 훌黝어를 타고 있어 취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교육청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열심히 근무해서 장애인 취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보조원에 자녀가 취업한 허종수(59세)씨는 "자녀가 장애를 지니고 있어 취업에 어려움이 커던 것이 사실이다"며 "시교육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롭게 일하게 된 만큼 성실히 일하고 스스로 자립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성과와 적합 직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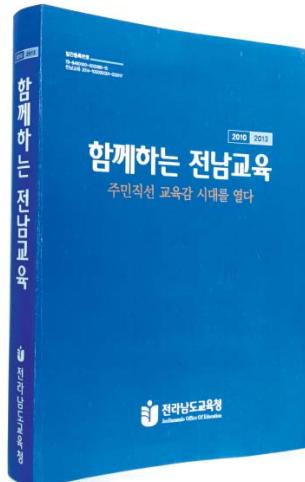


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 ‘함께하는 전남교육’ 백서 발간

전남교육 발전 위해 현재 진단·미래 과제 정리  
지역 특성 감안한 장교육감 역점 시책들 소개  
'전남형 시책'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정책 모델 제시



전남교육 백서



전남교육백서 전달식 장면

## 전남교육백서 의미

백서란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로서 영국 정부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가 하얀색이었던 것에서 'white paper'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도 '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백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함께하는 전남교육' 백서는 지난 4년간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비전으로 학생·교사·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온 전남교육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시기의 전남교육에 대한 역사 기록이다.

특히 이번 백서 발간은 전남 교육사에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난 4년을 정리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인 과정을 역사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백서의 내용 구성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이후 4년 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들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발행한 '함께하는 전남교육' 백서는 회보 70쪽, 부록 89쪽을 포함해 총 596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책의 목차는 사진으로 보는 전남교육, 제1부 전남교육의 현황, 제2부 주민직선 교육감과 교육자치, 제3부 전남교육의 도약과 발전, 제4부 전남교육의 과제와 전망,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백서가 이전의 백서와 가장 구별되는 것은 '2부 주민직선 교육감과 교육자치' 부분의 내용이다. 제2부 내용은 역사기록이자 보고서인 백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주민직선 교육감 시기를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교육에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가 시작된 의미를 정리하고, 교육감 취임사와 공약사항, 2020전남교육발전계획, 연도별 전남교육 방향, 전남교육의 철학적 기반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 장만체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전남교육이 지향하고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 점은 좋게 평가하고 싶다.

또한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투자된 예산과 공약사업별 추진성과를 정리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구성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전남교육백서 발간 배경

장만체 교육감은 재선을 앞두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선전 활동의 주요 수단인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과들을 알릴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들이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포기하고 백서 발간 설명회로 대신한 것은, 언론에 이미 알려

진 것처럼 협의 교육감으로서 교육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청렴 전남교육을 앞장서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전남교육은 주민직선 장만체 교육감 시대를 맞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의미있고 강조할 만한 세 가지를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주민·지역사회 등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 셋째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여 전남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도교육청이 백서를 발행한 배경에는 지난 4년간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도약과 발전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남교육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일관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번 백서를 발간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전남의 학교·역사를 되찾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장만체 교육감이 직접 사업설명을 한 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남의 학교들 중에서 100년 이상된 학교가 30여 곳이 넘고, 지난 50여 년간 778개의 학교가 폐교됐으나 이러한 학교가 지난 역사적 가치에 대한 보존 노력과 소중한 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행사 도중에 장만체 교육감은 "오래된 학교의 역사적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며 "학교의 역사를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소중한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백서를 발간하여 역사기록을 남기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찾는 노력도 결국 이와 같은 역사찾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도교육청이 백서 발간은 더 의미있는 일이다.

## 전남교육의 발전 과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를 진단하고 비전에 비준 과제를 정리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교육청이 발간한 백서의 내용에도 향후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7월, 초대 주민직선 장만체 교육감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전남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취임하였다.

역점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무지개학교,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 교원 행정업무경감 등을 설정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연차적 추진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차별화·경쟁위주의 기준 교육정책에 반하여 모든 학생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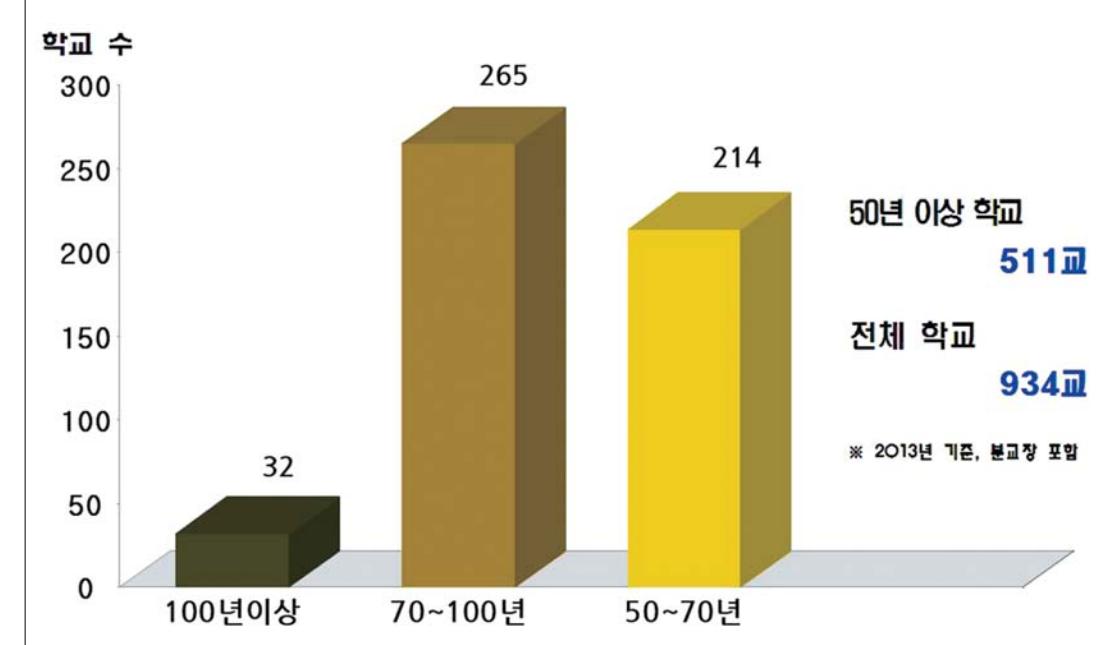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학교에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와 함께 학교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취임하면서부터 지속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 금전이나 청탁과 정실에 의한 인사관행에 쇄기를 박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정착한 점 등은 지난 4년간 주민직선 교육감이 이루어낸 성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통'이다. 취임과 동시에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이라는 지표 아래 도민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판단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식상으로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주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남교육발전미래위원회(교육지원청·교육미래위원회 포함) 설치와 주민·주체 교육장공모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또한 모든 행정을 학생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



전라남도 학교 역사 그래프

고, 학생의 수업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인사제도, 조직개편,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방안 정비를 추진한 것은 교육 본연의 시도로 평가받고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학교가 없어지면 교사도 행정직원도 필요가 없다는 학생 중심의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위와 같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들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이라는 비전과,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의 교육자표 아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제 전남교육은 그 방향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 서도 시대와 정책변화의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남형' 시책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모델을 선도하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발전적 변화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 학교탐방 - 목포혜인여중

# 호남이 주목하는 학교! 비상하는 목포혜인여중 교육활동

나를 만나고, 너를 이해하며, 함께 꿈을 찾아가는 V.I.P 혜인교육

‘혜인 교육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VIP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함께 즐거워하고, 누구나 행복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배움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목포혜인여자중학교 조웅현 교장선생님은 그동안의 성과와 결과물을 든든한 밀거름 삼아 앞으로의 힘찬 포부를 드러냈다.

목포혜인여중은 과거 구도심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최근 4년 연속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로 손꼽히며 목포교육의 트렌드를 선도(先導)하는 학교로 변모했다. 이 변화의 시작에는 거창한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투자가 아닌 바로 깊은 사랑과 믿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원도심의 공洞화(空洞化)로 빚어진 열악한 교육환경과 낮은 학력과 자존감으로 상처 입은 학생들을 일으키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긴 교사들,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활동을 지지하며 믿어준 학부모, 그리고 변화의 주역에 당당히 선 학생들이 그 주역들이다.

목포혜인여중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3가지의 큰 틀 V.I.P를 주요 교육목표로 세워 운영을 하고 있다.

첫째 Vision(소망)은 학생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꿈을 찾는 학교’이다.

둘째 Identity(자아정체성)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점검하여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배움으로 나를 깨달아 가는’ 교육활동이다.

셋째 Personality(인성)은 지성과 함께 ‘사람됨’을 강조함으로써 예의바른 학생, 남에게 베푸는 기쁨을 소유한 학생, 친구를 존중하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너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활동이다.



조웅현  
목포혜인여중 교장



언어개선 프로그램 ‘신설신생(학생자치)’ 수료식



진로체험학습

## 꿈과 끼를 살리며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OH!樂(락) 혜인반과후학교'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교육은 목포혜인여중의 중점 교육활동의 하나이다.

2013년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요교과 중심의 수업(5시 30분~7시 50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으로 2013년 ‘제5회 전국방과후학교대상’ 학교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전국2위)을 수상하는 평가를 거두었다.

## 지역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육

1학년은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진로교육’으로 1학기에는 진로검사와 앤이어그램 검사, 개인

## 3無(학교폭력, 왕따, 체벌이 없는) 학교의 첫발, 학교언어문화 개선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는 개개인의 인성에서 비롯되며, 인성 함양의 시작은 ‘언어’다. 이 기조 아래 품격 있는 학교언어문화로 개선하고자 ‘통(通)·통(同)·통(統)’이라는 언어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시행으로 큰 호평을 받아 전국의 학교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2013년에는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꿈꾸는 인재를 지원하는 교육복지학교

문화뮤지컬 관람, 영화관람, 진로체험 여행 지원 등과 학습학원수강 결연 지원, 기초부진아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습플래너 지원 등, 각종 학생 지원 장학사업(호남 최다의 삼성 꿈 장학생 선정, 교복 지원 등등 학습지원, 문화적 결핍 지원, 직업

복지 지원으로 교육복지사업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였다.

‘목포혜인여자중학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좀 더 나아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꿈꿀 것입니다. 가족처럼 따뜻하면서 더욱 ‘든든한 학교’가 되도록 강해질 겁니다. 학교의 부단한 움직임으로 학생들은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오늘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조웅현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자신감과 힘이 느껴졌다.

이런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목포혜인여중은 오늘도 변화중이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 학교탐방 - 목포혜인여고

# 꿈을 향한 플러스 로드맵의 실현으로 명문여고로 우뚝!

## 시대에 부응하는 명문학교의 위상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는 유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디도해를 굽어보고 있는 학교로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转变하였다. 최근의 수상실적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전국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2012학년도)’를 비롯하여 ‘창의경영학교 운영 최우수학교(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 최우수학교(2012.2013학년도)’, ‘스마트교육 우수학교(2013학년도)’, ‘녹색환경대상(2013학년도)’ 등 여러분 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 육성을 교육목표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학교의 환경을 아름다워 면서도 편리하게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창의·인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였다. 그 결과 침체되어 있던 목포구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명품 학교로 도약해 많은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 실속 있는 교육과정 운영

목포혜인여고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2012학년도부터 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4+1, 4+2제계의 수준별 수업과 블록티임 수업(75분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전개 하여 학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또한 학생의 회망에 따른 방과후 과목을 개설하여 자율선택의 무학년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수소 선택의 창의경영특강을 매일 밤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심화된 수업을 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상위반 학생들은 리더십캠프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수준별 수업과 선택형 방과후 수업, 고사멘토링, 소수 창의경영수업, 생활관 특별 수업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는 등 심화된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더불어 기초미달 학생 제로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체계적



김은미  
목포혜인여고 교장



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의 학생들을 학년별로 소수 선발하여 1학년은 새날반, 2학년은 비전반으로 명명하고, 비전캡프를 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습 및 창의경영 수업과 연계하여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품격있는 창의 인성교육 실시

목포혜인여고는 ‘교과와 함께 하는 Happy Harmony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독서토론수업을 비롯하여, NIE 수업, 모둠협동수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과페스티벌과 축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하고 있는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방과후활동(토토풀)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과 동아리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성과가 우수하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지도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를 시상하고 있다. 그 결과 수학문화 축전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2년 연속 큰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기후변화 동아리발표대회 금상, 제22회 박화성 전국백일장대회 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목포혜인여고는 한편으로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 먼저 전교생에게 자체 제작한 학습 플래너인 ‘짜임’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지도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및 플래너 자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플래너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꿈·희망·미래재단과 연계하여 리더십·비전 캠프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적 부진 학생에게는 캠프 참여를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자신의 비전 확인하는 기회를, 심화학생에게는 세상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밀거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 담당과목교사, 진로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장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기초부진 학생 제로화

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창의경영수업을 통한 소수 신화 수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3단계로 이루어진 진로 프로그램 또한 서서히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꿈 채우기, 꿈 다져가기, 꿈 실현하기’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차세 hệ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와 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고의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목포혜인여고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로 교과 교실에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업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자칠판, 단조침프로젝터, 마이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방열판, 유리창에는 시트지, 퀼스크린을 활용하여 각 교실 벽과 창문에 교과별 특색에 맞는 교실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에 완공한 혜인학사생활관은 편리하고 체계적인 현대식 시설로 4인 1실에, 자기주도 학습실, 휴게실, 멀티미디어실, 소강의실, 그룹토



직업체험

론실, 상당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탐방, 토요봉사활동, 진로연계 체험활동 등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가는 곳이 학교임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쾌적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목포혜인여고가 등학교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2015 고교배정은 실패한 정책,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임동호 의원, 광주시교육청 고교배정정책 문제점 질타



임동호

광주시 의원

광주시 교육청이 고교배정방식을 성적을 포함한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던 학교와 짐과는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실패한 고교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동호 의원(교육위원회 동구·남구)은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 변경은 실패한 정책이다”며,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2015년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성적을 포함한 고교배정

방식으로 인해 작년에는 687명의 강제배정 학생들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학생들에게 9개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자신의 반으로 지원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준다. 또한 성적을 반영하여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2014년도 고교배정 결과 우수한 학생들의 배정이 학교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 성적별 균등 배정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고교배정방식은 3월 25일경 고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 3월 27일경에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시교육청은 현재 고교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공사립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며, “시교육청은 현재의 고교배정방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학교 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시교육청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다”며, “2015년 고교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부장 jle@jledu.co.kr

## 인생의 네 가지 봄



이윤상

청평고등학교장

봄날에 일 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인생의 설계도를 짜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집을 미리 가보는 것과 같다. 둘째로 갖추어야 할 것은 마주봄이다. 지금 우리는 통신이 매우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감(交感)이 형성된 모습, 상호작용(相互作用)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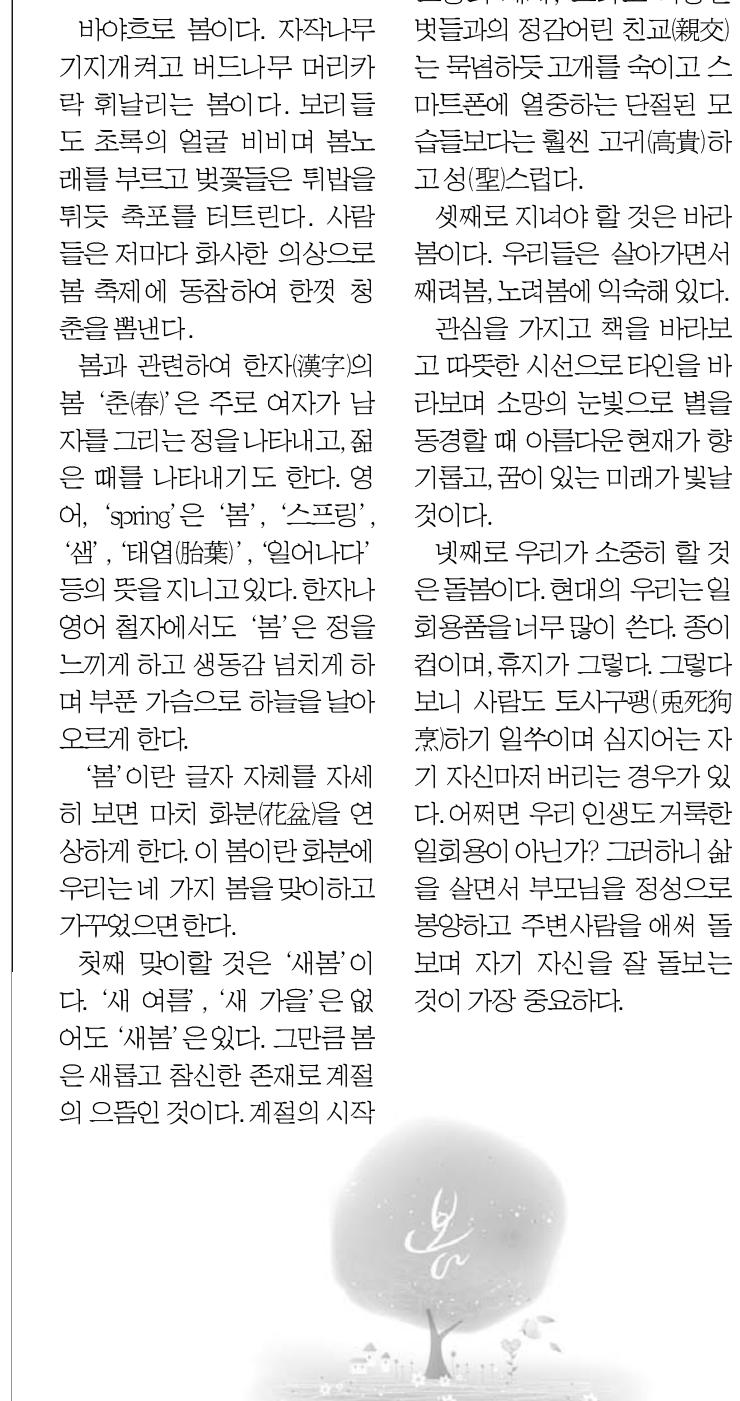
사랑하는 연인,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그리고 다정한 벗들과의 정김여린 친교(親交)는 목숨하듯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단절된 모습보다는 훨씬 고귀(高貴)하고 성(聖)스럽다.

셋째로 지녀야 할 것은 바라봄이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바라봄, 노려봄에 익숙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소망의 눈빛으로 별을 동경할 때 아름다운 현재가 향기롭고, 꿈이 있는 미래가 빛날 것이다.

넷째로 우리가 소중히 할 것은 돌봄이다. 현대의 우리는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쓴다. 종이컵이며, 휴지가 그렇다. 그렇다 보니 사람도 토사구팽(兔死狗烹)하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거룩한 일회용이 아닌가? 그러하니 삶을 살면서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고 주변사람을 애써 돌보며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봄’이란 글자 자체를 자세히 보면 마치 화분(花盆)을 연상하게 한다. 이 봄이란 화분에 우리는 네 가지 봄을 맞이하고 가꾸었으면 한다.

첫째 맞이할 것은 ‘새봄’이다. 새 여름’, ‘새 가을’은 없어도 ‘새봄’은 있다. 그만큼 봄은 새롭고 참신한 존재로 계절의 유품인 것이다. 계절의 시작



## “자유학기제, 철저한 시스템 갖춰야”

양형일, 체험학습장 건설·진로지도멘토링단 운영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연구학교 5개교와 회망학교 13개교 등 총 18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며 “현장 체험학습과 진로지도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야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지필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유·초·중·고를 연계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능력·흥미를 발견하고, 키우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그는 또 “재원을 확보해 대규모 ‘빛고을スマ트교육관’을 건설하면 부족한 체험학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학계·교사·공공기관·기업체를 망라한 진로지도멘토링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지필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유·초·중·고를 연계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능력·흥미를 발견하고, 키우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철 부장 jle@jledu.co.kr

## 함평영재들의 세계로 미래로 힘찬 출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노경석)은 13일 영재교육원생 77명과 학부모, 지도교사, 전남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관계자 등을 포함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실시하였다.

노경석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재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과 도전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영재교육을 처음 받는 초등학교 5학년 20명의 학생들에게 장미꽃송이로 축하해 주었다.

전남대학교 박종원 교수는 ‘과학적 창의성의 이해’라는 관련주제로 다양한 관찰과 비판관습 사고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며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부모들의 협의시간에서는 학부모들이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생들을 위한 격려를 당부하였다.

## 2013 전남수업우수교사(JET) 27명 선정

2013 전남수업우수교사(Jeonnam Excellent Teacher)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학년도 전남수업우수교사(JET) 인증서

2014. 2. 25.(화) 10:30~13:30

전라남도교육청



▲ 김종민(영광중농중 영어) ▲ 김정숙(목포공업고 영어) ▲ 전승윤(나주고 영어)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상 수상자  
▲ 정의민(순천효신고) ▲ 김향운(나주공업고)

##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턱없이 부족”

김왕복 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운동장 활용하여 놀이 공간 확보 주장

김왕복 광주교육감 예비후보(59·사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왕복 후보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주택가의 골목은 좁아지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사라져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놀이터는 온통 철골구조물로 만들어진 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 보여주기식 놀이 공간일 뿐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놀이공간은 단순히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 아니라, 흙을 밟고 만지며 자연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피부를 접촉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놀이하는 것은 공부 할 시간을 뺏는 것 아니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이며, 그렇기에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왕복 후보는 “운동장이라는 넓은 공간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시켜 몸과 마음 모두 훌륭한 광주 어린이들을 만들어 가는데 광주시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성남중 총동문, 체육복으로 모교 사랑 실천

장성남중학교(교장 송정인)는 지난 3일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총동문회(회장 박태우)에서 기부한 체육복 250만원 상당을 35명의 신입생들에게 전달했다.

장성남중은 지난 2011학년도부터 매년 입학식 때 총동문회에서 기부한 체육복을 신입생 전원에게 나눠주며 선후배

간에 훈훈한 정을 쌓고 모교 사랑 정신을 확인하고 있다.

입학식에서 박태우 총동문회장은 “모교가 명문중학교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니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장성남중의 발전을 위해 선생님들과 후배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정인 교장은 “선배들의 마음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 신입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 잘 할 것이라 믿는다”며 “동문들의 뜻을 잘 새겨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체 교직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부장 jle@jledu.co.kr

## ■ 학교탐방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꿈을 향한 힘찬 도전’



가전·자동차 산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날이 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서로에 관심과 존중, 이해 속에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광주전자공고 장기적 교장을 만나 학교의 비전과 교육 방침을 들어본다.



##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재를 위한 학교장의 교육방침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학생들은,

- ▶ 꿈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
- ▶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바른 학생교사,
- ▶ 꾸준히 연구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사,
- ▶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을 강화시켜 어느 직장,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학과 동시에 산학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재를 위한 학교장의 교육방침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학생들은,

- ▶ 꿈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
- ▶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바른 학생교사,
- ▶ 꾸준히 연구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사,
- ▶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을 강화시켜 어느 직장,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학과 동시에 산학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 특성화교로서 타 고교와의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

2013년 2월 7일, 제15회 졸업생을 배출한 비교적 젊은 학교로 1996년 3월 1일 개교 당시부터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역동적인 학교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성화고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중학교평균 내신비율이 63.84%), 매년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때 체육관이 가득 찰 정도로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며 학부모봉사단, 학부모취업지원단, 학부모해나리동서회, 학생들의 진로 코치가 되어 교육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부모 진로 코치단 등으로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 및 남녀 비율이 거의 5050 및 고른 영령분포를 보이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광주의 명문 특성화고를 편성하여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특수학급 5개 학급을 편성하여 특수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로, 일반학생들에게는 특수학생들의 생활을 통하여 존중·배려·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 특성화고에 적합한 모형개발을 통한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평생학습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 분야에 맞게 전 생애에 걸친 진로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시기에 갖추어야 하는 경력 및 자격기준들을 제시하여 학과별 인력양성별, 산업체 직무분야 성장경로 개발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첨단기술 교육, 현장실습, 산업안전교육, 직장예절교육, 회사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장경로(Development Path)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 성공취업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캠프 운영

성공취업 6단계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기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학협약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중 희망자를 선별하여 캠프를 실시하며 최근의 취업 동향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모의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관련 교육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교과별 교수·학습모형 적용 통한 취업률 및 유지를 제고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운영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직 학생을 통한 현장 적응력 신장, 기초 학력 강화, 이론·실습의 통합 운영, 선핵교과의 다양화, 직업 기초능력교육의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사제동행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산업체 견학을 통해 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체 방문의 방법은 산업체의 상황에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개발을 위한 교내 동아리활동

따라 대규모 방문과 소규모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학과의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산업체 위탁 직장체험 프로그램

산업체 견학 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체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하계·동계 방학 중에 기업체에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직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발굴하고 단기간(3일) 근로를 실시함으로써 취업 후 이직을 최소화와 취업률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 • 성공취업을 위한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 및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소양 및 직장 적응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있다.

##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개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중학생들이 광주전자공고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설동아리가 많은 점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학교축제인 월송제는 이를동안 열리는데,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성황을 이룹니다.

상설동아리는 학생자치분야 3개, 학생언론분야 2개, 스포츠체육분야 6개, 공연예술분야 7개, 전시예술분야 4개, 학술분야 분야 3개, 전공관련 분야 9개, 기능영재반 5개, 그 외 42개 계별활동부서가 조직되어 졸업할 때까지 1가지 이상의 취미 활동에서 전문적인 소질을 배양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한 주말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 학생들의 규칙적인 생활습관형성과 둘째 기능 강화와 다양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개발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 • 동아리활동 참여로 이룬 결과

- 2009~2010년 :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관 재능コン테스트 금상 수상(전 동아리 참여)

• 2009~2011년 : 방송컨텐츠 제작 경연대회 은상 수상(댄스, 랩, 밴드동아리, 미술, 방송반, 연극반 참가)

• 2011년 : 기아자동차 주관 동아리페스티벌 은상 수상(댄스동아리), 광주청소년 락페스티벌 은상 수상(밴드동아리)

• 2012년 : 삼익악기 사회 기부 공모 참여 선정 악기 일체 지원(1,000만원 상당)

\* 그 외 페스티벌, 레드페스티벌, 충장 축제 등에 공연 참여하였다.

##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진학)를 위한 명품학교의 자부심

광주광역시의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고, 학교-유관기관-지역산체와의 협력체제 구축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의 산업체 적응력과 취업률을 높였다.

주용 프로그램으로는

- 진로(취업, 진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드림레이터’를 제작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
- 해외취업 동아리, 취업캠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 취업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 제14회 광주교육정보대상 (학교분야) 수상

- 모든 교사들의 정보화 활동 지원을 위해 최신 노트북으로 교체 완료.

- ICT 활용 수업개선 연구회 활동으로 2012~2013년 전국 수업 연구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둠.

- IPTV연구회 활동으로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교수 학습자료로 활용.

- 교사들의 스마트교육 관련 연수를 통해 최신 정보화수업 주도.

- 교내 ICT관련 경진대회 Dream Contest 실시.

- 2011년 교사 정보대상 수상.

2013년 광주교육정보대상 표창 학교 포상금 500만원으로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구입

정리=발행인 양순권

## 2013학년도 교육실적

### 제 16 회 졸업 : 488 명 졸업 (총 졸업생수 : 8,671 명)

### 제 42 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우수상

· 그래픽디자인종 디자인과 3학년 김훈

### 제 48 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 그래피디자인(동2), 메이트로닉스(동1), 자동차정비우수1)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

### ■ 광주광역시지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 취업강회를 위한 특성화 사업운영

(공기업 및 대기업 공개채용 대비반 운영)

### ■ 교육부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 성장경로(Development Path) 모형에 적합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제 10 회 Be the CEO 대회 우수학교(교육부장관상)

### ■ 중소기업청 비즈쿨 신청(5개 창업동아리 운영)

### ■ 2013년 전국학생과학발明품 경진대회 동상 수상

### ■ 2013년 광주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금상·은상 수상

### ■ 학부모 취업 홍보단 운영(삼성증권공업 등)

### ■ 2013학년도 졸업생 취업 및 진학 현황 (2014년 2월 현재)

#### 취업 (196명)

· 한국전력기술공사	2명	· 부사관	2명
· 한국동서발전	1명	· 해외취업	3명
· 한국증권발전	2명	· 삼성그룹(확정)	42명
· 한국수자원공사(확정)	4명	· 한화그룹	3명
· 한국석유공사	1명	· 현대중공업	2명
· 한국기스공사	1명	· 신도리코	1명
· 국립공원관리공단	1명	· 스테코	4명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명	· 한국차량공업무등	
· 광주과학기술원	1명	· 외 87개 업체	125명
<b>진학 (149명)</b>			
· 4년제대학	2·4년제대학	건국대학교 외 15개 대학	41명
· 4년제대학	4년제대학	한국폴리텍5대학 외 17개 대학	108명

